

일본제품 불매운동 광주·전남 급속 확산

한국마트협회, 지역 300곳 동참
리얼미터 조사 지역민 55% 참여
'보이콧 재팬' SNS 통해 확산
맥주·전자제품·의류로 번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광주·전남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동네마트 300곳은 일제

판매중단 운동에 뜻을 모았고 지역 소비자 절반 이상은 이미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범기업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징용된 이영숙 할머니가 사죄를 받지 못하고 15일 별세하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마트협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일제 판매중단 운동에 참여한 업체는 300곳으로 파악됐다. 4200개 회원사를 지닌 마트협회는 담배, 맥주뿐 아니라 과자류, 음료, 간장 등 100여가지 일본 제품 전반의 철수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점포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판매중단 운동에는 지난 주에 이어 동네마트 3000곳 이상이 동참했고, 2만곳 이상의 슈퍼마켓이 가입된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판매중단을 선언한 후 회원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는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판매중단 운동을 벌이는 것은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라며 "회원들이 사용하는 단체 대화창을 통해 판매중단 인증 사진을 주고 받으며 서로 응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제 불매운동을 상징하는 '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표어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성인 5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현재 일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54.8%로 다른 지역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우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 역시 65.4%이었고 '불참하겠다'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이같은 불매운동은 아사히·기린이차방·삿포로 등 맥주와 소니·파나소닉·캐논 등 전자제품 브랜드, 데상트·유니클로·ABC 마트 등 의류 브랜드로 번지고 있다.

광주지역 4개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1~10일 아사히·기린이차방 등 일본산 맥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1% 떨어졌다.

'유니클로'가 일제 불매운동의 대표적 브랜드로 꼽히면서 국내 SPA(제조·유통일괄형) 브랜드는 때 아닌 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국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신성

통상의 '탑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구, 유관순, 윤동주 등 독립 열사에서 착안한 '광복절 기념 티셔츠'를 내놓았고, 이랜드 '스파오'는 토종 캐릭터 '로봇 대권브이' 티셔츠와 에코백 등을 선보였다.

최근 광주 충장로에 문을 연 탑텐 매장에서 만난 박성민(32)씨는 "평소 유니클로 제품을 써왔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제품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양동통닭' 광주신세계 입점
광주 대표 맛집인 '양동통닭'이 16일 (주)광주신세계 푸드플라자에 입점했다. 지난 달 새단장한 푸드 플라자에는 '궁전제과' '신선한 주방' 등 지역 음식 브랜드 7곳이 들어섰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 아파트값 급등... "세입자, 전세보다 매매가 유리"

매매전환 비용 2년새 934만원 ↑
KB부동산 리브온 분석 결과

광주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유지하기보다는 매매가 유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Liv ON)이 아파트 세입자의 매매전환비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전환비용은 9948만원으로, 2년 전인 2017년 6월 9014만원보다 934만원 증가했다.

매매전환비용은 세입자가 동일한 아파트를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할 때 2년 전 보

증금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입자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 재계약할 것인지 매매로 갈아탈 것인지 판단할 때 지표로 활용된다.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 재계약비용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광주 전세 재계약 비용은 1934만원으로 늘었다.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광주지역 아파트 세입자가 아파트를 사려면 2년 전에는 전세보증금에 평균 9014만원을 보탬어야 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930여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매매전환비용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유지하기보다는 매매가 유리

했다"며 "광주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 조치가 예상되지만,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매가 전세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아파트를 마련하기 보다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때까지 전세를 유지하려는 전세전환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수전략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전남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전환비용이 감소했다. 2년 전인 2017년 6월 매매전환비용은 6750만원이었는데, 올해 6월 5277만원으로 1473만원 부담이 줄어들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교육부장관상
시·도 교육감상 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No Bullying, Yes Bling!

제8회

청소년축제

2019. 08. 17(토) 10:00 ~ 19:00

광주 동구 금남로 공원

대학선택을 위한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 / 진로 탐색 및 적성 상담 / 학교폭력 상담
신나는 체험활동관 / 대학생 인기 댄스, 밴드 공연 / 경품 이벤트

경연대회 모집안내

모집분야	대상	모집기간
공연예술분야 (댄스, 음악, 풍물 등) 3:3 길거리 농구대회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참가비 무료)	8월 13일(화) 까지

문의전화: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 010.7174.1257
자세한 사항은 **NAVER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 후원: 교육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은행 '청소년 진로체험 멘토와의 만남' 금융교육

목포 문태중 학생 35명 초청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16일 목포 문태중학교 1,2학년 학생 35명을 본점으로 초청해 '청소년 진로체험 멘토와의 만남' 금융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학생들과 금융 분야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다소 어려운 금융과 경제 분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이날 송중욱 은행장은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서 은행 현장의 생생한 에피소드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위해 도전하는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해 청소년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광주은행 본점 금융박물관에서 금융교육 및 금융업에 대한 진로교육을 진행했고, 임원실, 전산센터, PB센터, 영업부, 워터랜드 등을 견학하며 청소년들이 진로

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며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우리지역 청소년을 비롯한 금융소비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교육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소매유통업, 3분기 경기 호전 기대

휴가철·추석 등 계절적 요인 작용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은 3분기 경기 전망이 전 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휴가철과 추석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66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99)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16으로 나타났다.

RBSI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이는 본격적인 휴가시즌과 추석명절 효과로 계절상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업체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고정비용(인건비·전기료 등) 상승과 경기침체로 온도가 나타났다.

3분기 업체별 RBSI는 백화점(175)과 대형마트(136)는 호전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편의점(84)과 슈퍼마켓(79)은 경기 침체, 업체간 경쟁 심화, 소비심리 위축, 여름철 전기료 등 고정비용 상승 등으로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매유통업체들은 경영 애로 요인으로 '소비심리 위축' 95.6%, '비용 상승' (24.2%), '업체간 경쟁 심화' (13.6%) 등을 꼽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

광주 8639원 전남 8590원
알바 시급 최저 수준

광주·전남지역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사이트 알바몬이 올 상반기 전국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960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시급은 광주 8639원, 전남 8590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평균 시급은 전국 평균(8881원) 보다 낮고 14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평균 시급을 주는 곳은 세종시(9126원)였고 서울 8969원, 제주 8870원, 경기 8865원, 충남 8813원, 충북 8790원, 강원 8760원, 인천 8747원, 대전 8719원, 부산 8711원, 광주 8639원, 경북 8601원, 전남 8590원, 전북 8581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평균 시급은 올해 법정 최저 시급인 8350원 보다는 높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시급이 높은 곳은 서울 강남으로 9189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충남 논산으로 8443원에 그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91.87 (+9.39)	금리(국고채 3년) 1.43 (0.00)
↓ 코스닥 674.42 (-0.37)	환율(USD) 1177.60 (-1.70)